

“개회식 참석 인생 최고 기쁨...친절한 시민·깨끗한 환경에 감동”

호평 쏟아진 개회식

“입장 때 소름 돋아”...“고국 가면 광주 홍보대사 될 듯” 각국 선수단 SNS에 불꽃놀이 사진 등 올리며 참석 소감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참석한 세계 각국 선수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동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개회식의 여운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특히 각국 선수단의 대표 단장과 귀빈들 사이에서도 광주시민의 열렬한 환대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 완벽한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면서 국제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도 급상승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선수들이 잇따라 개인 SNS에 개회식 참가 소감을 담은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한 미국 선수는 개회식 불꽃놀이와 선수단 입장 사진 등을 게재하며 “개회식은 정말 놀라웠다! 미국팀과 함께 매진된 경기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 경기는 시작됐다”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캐나다의 한 선수는 동료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개회식 참가는 지금까지 내 인생 중 가장 큰 기쁨이다. 캐나다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선수는 “개회식장의 수많은 인파와 화려함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경기장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순간 4만 3000명의 환호성으로 (경기장이) 가득 찼다”며 “내 삶의 가장 좋았던 경험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 밖에도 “경기장으로 들어왔을 때 달살이 들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밝게 빛나길 바란다”는 등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스웨덴, 세르비아 등 각국 선수들의 개회식 참석소감 글들이 이어졌다.

각국 선수단의 대표단장과 귀빈들의 찬사도 쏟아지고 있다.

지오바니 이탈리아 선수단장은 이날 “광주시민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 그리고 맑은 날씨, 쾌적한 환경 등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서 “광주는 전 세계 어디 도시보다도 매력적인 곳”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양리 중국 선수단장도 “중국팀은 광주에 와서 친근감을 느끼고 의사소통도 원활하다. 이러한 환대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시아누드라 네팔 선수관리는 “광주U대회 선수촌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머물기에도 좋은 곳이다. 따뜻한 도시 광주에 온 것 자체가 기쁨이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 음식도 맛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선수단장인 빈센트는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깨끗한 도시 분위기 등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도시 환경에 감동했다”며 “고국에 돌아 가면 광주의 좋은 이미지를 주변에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듯 하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광주U대회 개회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빛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유정현·김환식 공동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와 개회사에 이어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의 대회사, 박근혜 대통령의 개회선언으로 진행됐다.

개회행사는 서석대 등 광주만의 맛과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녹여낸 마당놀이 문화공연과 디제잉으로 흥겨움을 더한 선수단 입장 등이 펼쳐졌다. 특히 선수단을 무대 그라운드에서 착석시킨 점은 ‘모두 함께 개회식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회식 선수단 대표선서는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김국영(광주시청)과 ‘여자 유도 기대주’ 김성연(광주도시설도공사)이 했으며, 대회 성화는 한국인 첫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와 대한민국 체조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이 공동 점화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광주 문화 역량·시민의식 보여줬다”

박명성 개회식 총감독...“폐막식은 모두 어울리는 축제”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 세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 총감독을 맡은 박명성(52) 감독은 4일 “광주의 문화적 역량과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박 감독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 조직위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행사를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면서 “평가는 관객·시청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명지대 뮤지컬학과 전임부교수이기도 한 박 감독은 “저도 고향이 이쪽(해남)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 광주의 문화적 역량이나 시민의식, 문화적 수준 등을 보여주고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수단 입장 시간에는 디제



이를 출연시키고 선수단 입장 시간도 20분 단축한 것이 개회식의 지루함을 덜어준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감독은 “다만, 마지막 강강술래를 할 때 떠오른 달이 조영 때문에 충분히 서석대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폐막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제 없이 ‘재미있고 격 있게 잘 놀자’는 취지를 내비쳤다. 박 감독은 “고생했던 자원봉사자를 위로하고 선수와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젊은이들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지난 3일 밤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력 차종으로 생산되고 있는 스포티지를 컨셉트 삼아 ‘빛고을 아트카 프로젝트’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립니다

‘월요광장’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이 오늘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필진들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날로 커지는 오늘을 통찰하며, 독자 여러분과 희망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월요광장’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 김하림 교수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 ▲난카이대학 교환교수
-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미국 델라웨어대학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방문교수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머큐리포스트 대표이사 ▲제일기획 제작본부 상무부
- 채희윤 <광주여자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소설가 ▲‘소설 쓰는 여자’등 다수 집필

光州日報社

원천봉쇄...‘메르스 공포’ 없었다

“메르스가 뭐예요?” 서울에서 잇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는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U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각국 선수단과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메르스에 대한 걱정 없이 경기와 관광을 즐기고 있어서다. 내국인 방문객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천명의 선수들이 생활하는 선수촌에

도 메르스 공포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진찰과 치료를 받는 병원, 종교 행사장, 미용실 등에서도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쓴 선수는 찾기 힘들다. 선수들은 선수촌 주변 술집과 음식점을 찾아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지난 3일 개회식이 열린 주경기장(월드컵 경기장)으로 국기를 앞세운 채 입장한 선수들도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선수는 없었다. 이날 개회식장

을 가득 메운 관람객 중에서도 마스크를 쓴 관람객을 극히 일부였다.

지난 2일 광주U대회 개회를 앞두고 나주, 담양 등으로 첫 번째 팸 투어(사전 답사여행)에 나섰던 독일 유도 선수단(19명)은 아예 메르스 감염 자체에 무신경해 보였다. 내·외신 230여명 언론사 700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려 열린 취재 경쟁을 벌이는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도 마스크를 쓴 기사는 없었다.

사전 우려와 달리 광주U대회가 메르스

공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방역망이 꼼꼼하게 관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선수촌, 경기장, 미디어센터, 공항 등 주요 관문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준비한 것도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는 평가다.

영국 다이빙 선수 시아레 크라이언(여·21)도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대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기용·백희준 기자 pbxer@

발열감지기·손소독제 곳곳 설치 내외국인 마스크 없이 경기·관광 즐겨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1-607-5330

신제품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가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농성공무원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망, 커피전문점, 식당 차량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장성군 북이면 백양사 IC인접 친환경농산물 전문공장 교통입지우수 기계설비완비
대지 9341㎡ 건물 2031㎡
NPL 가능, 2011년 신축
감정가 41억 4천
최저가 14억 9천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진
지하1층~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최저가 5억 9천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근린권물 아파트단지외 단독주택 상권 식당입점 추천
4층건물 1층 주차장
대지 499㎡ 건물 912㎡
감정가 11억 9천 8백
최저가 8억 3천 8백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